

‘부러더’, 마동석X이동휘의 억지 아닌 내추럴 코미디



형제 같지 않은 마동석과 이동휘가 형제 같음으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잡았다. 영화 '부러더'는 뼈대 있는 가문의 진상 형제가 멘탈까지 묘한 여인을 만나 100년간 봉인된 비밀을 밝히는 초특급 코미디. 인기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를 원작으로 한다.

인기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원작

“통쾌·사랑스러움...다양한 웃음 공존”

이 영화는 종잡질 자손 '석봉(마동석 분), 주봉(이동휘 분) 형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과 연을 끊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을 오면만 방문, 펼쳐지는 해프닝을 담았다. 장유정 감독은 고백에서 느껴지는 진통과 기쁨을 세트나 CG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안동의 퇴계 태실과 의성 김씨 종택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현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잡 집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마동석은 최근 화제작 '범죄도시'에서의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을 벗고, 보다 친근한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유머 방식으로 개일 같은 재미를 준다. 특히 이동휘가 마동석의 신체를 활용한 개그는 웃음이 절로 난다.

이동휘는 그간 캐릭터와는 사뭇 다르다. 장르 자체는 그가 자주 해

오던 코미디이긴 하지만, 이동휘가 웃는 순간은 거의 없다. 이에 이동휘가 출연을 결심하기도 했다. 진지함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오히려 웃음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동휘의 생각은 적중했다. 웃길려고 하지 않아도 웃긴 상황들이 연출된다.

배우들 스스로도 '억지로 웃기려 하지'보다 그저 캐릭터에 몰입하고, 대사와 상황들로 유머를 선보여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유정 감독이 코믹 연기를 잘하는 마동석과 이동휘를 심분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두 사람은 대본 그대로만 최선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주어진 몫은 다 해냈지만 전작들에서 보던 이상의 모습을 없다. 마동석과 이동휘를 자유롭게 내버려뒀으면, 오히려 웃음요소가 더욱 배가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가족에 부분은 잘 살았다. 종남배우 진무송, 성병숙이 살던 가족에는 공감대를 형성, 자신의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게끔 한다. 코미디 영화지만, 드라마적 요소가 더 잘 산 듯하다.

뮤지컬을 원작으로 들고 왔지만, 뮤지컬적인 요소를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송영창, 송상은 등 공연 출신 배우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앙상블은 예의 없는 놈들의 근본 있는 코미디를 유쾌하게 완성시켰다. 여기에 이어나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코미디와 드라마의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지창욱의 특별출연은 반가움을 안겨준다.

'부러더'를 두고 장유정 감독은 "통쾌해서 웃는 웃음, 사랑스러워서 웃는 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 등 다양한 웃음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다양한 웃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기존 코미디에서 선호하던 웃음과는 확실히 다르다. 장유정 감독 표 코미디가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봉은 오는 11월 2일.

홍반장·광식이...故 김주혁이 남긴 '불멸의 캐릭터 5'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대표작 제복처럼 당장 영화 현장에, 예능 녹화장에, 시상식장에 호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날 것만 같다. ‘홍반장’은 언제라도 IPTV를 통해 볼 수 있지만, 김주혁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다.

배우 김주혁이 지난날 30일 오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마흔여섯 짧은 생을 마감했다. 데뷔 20년, 이제야 연기의 맛을 알 것 같던 배우는 두 편의 유작 '홍부', '독전'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성실한 배우였다. 스텝일꾼,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기지만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관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인기배 넘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다.

김주혁의 인장이 각인된 '불멸의 캐릭터 다섯'을 꼽아봤다.

◆ 싱글즈,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

배우 김주혁의 존재감을 알린 영화다. 고인이 된 장진영과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몇 여성들을 설레게 했다. 김주혁이 분한 '수현'은 외모

와 능력에 매너까지 갖춘 증권맨. 직장을 잃은 29살의 나난(장진영)은 패밀리 레스토랑 매니저로 취업을 하고 수현은 나난에게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대놓고 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회사 동료들과 해당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며 나난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어느 날 나난이 전 회사 상사에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남자에게 어퍼컷을 날린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 뉴욕으로 발령 난 수현은 나난에게 월 천만원을 벌여줄 테니 자기계발을 하라며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나 나난은 홀로서기를 선택하며 수현과 짧은 이별을 한다. 이별이 슬프지 않은 아름다운 엔딩이었다.

◆ 광식이 동생 광태, 한 여자만 보는 해바라기남

김주혁에게 '해바라기남'의 이미지를 선사한 작품이다. 광태(김주혁)는 대학 시절 윤경(이요원)을 7년간 짝사랑했다. 하지만 그녀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서는 속앓이다.

세월이 흘러 광태는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친구 결혼식에서 윤경과 재회한다. 그러나 여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며 보는 사람에만 태운다. 그 와중에 동생 광태의 친구인 일영이 윤경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별로 달인' 김현석 감독 특유의 해바라기남 캐릭터는 김주혁이 시초였다. 이후 엄태웅(시라노-연애조작단), 정우(‘세시봉’)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의 김주혁의 연기는 사랑에 서툰 남자들의 첫사랑 감성을 일깨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 홍반장, 뒤편지 해결하는 동네 슈퍼맨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 못하는 것이 없는 민승 재꾸꾼 홍두사(김주혁)은 동네 반장을 역임하고 있다. 동시통역관, 유명 가수의 보디การ์ด 등 전력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떠돌 정도로 미스터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어느 날 치과의사 윤혜진(엄정화)이 개업하고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힌다. 혜진은 세상에 들도 없는 오지마을을 펴며 사사건건 참견하는 홍반장이 못마땅하지만 서서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김주혁의 능글능글한 연기와 독특한 유머 센스가 빛을 발하며 김주혁의, 김주혁을 위한, 김주혁에 의한 영화를 만들어냈다. 김주혁의 촌대 매력이 빛을 발한 홍반장 역시 수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유아적 내면의 화가

40대 중반의 배우 김주혁이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했고, 큰 인정을 받은 작품이다. 홍상수 감독과 만난 김주혁은 캐릭터 연기에 특화된 자신의 역량을 넘어 생활 연기도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화가 영수로 분한 주혁은 여자친구 민정(이유영)과 싸우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민정과 싸우고 연남동 거리를 배회하는데 곳곳에서 민정과 꼭 닮은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자신이 민정이 아니라고 하며 영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민정과 민정을 알고 있는 남자들의 괴리가 영수를 괴롭게 한다.

김주혁은 이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17살 연하의 배우 이유영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것은 물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

◆ 공조, 처음 보는 악의 얼굴

김주혁은 데뷔 20년간 선량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공조'는 김주혁의 연기 인생에서 있어 가장 도전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이 작품에서 김주혁은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조직의 리더 차기성으로 분했다. 찡찡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싸늘한 얼굴에 북한에서 갓 내려온 듯한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악역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늘 악역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김주혁은 이 작품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그 결과 데뷔 20년 만에 첫 남우조연상(더 서울 어워즈) 수상이라는 큰 기쁨을 맛봤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3일 전의 일이었다.

그룹 ‘어반자카파’, 오는 8일 컴백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룹 어반자카파가 오는 8일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를 발매한다. 가요계 대표 실력과 흥성 그룹 어반자카파가 신곡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발매를 앞두고 이미지 티저를 공개하면서 신곡에 대한 본격적인 예고를 시작했다.

어반자카파의 신곡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는 한 겨울 감성을 자극할 곡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곡 제목과 함께 공개된 이미지 티저는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차분한 모노톤에 곡 제목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와 함께 어반자카파의 세 멤버들이 각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2009년 '커피를 마시고'로 데뷔,

이제는 결성 9년차인 어반자카파는 음악대를 넘나드는 보이스의 권순일, 파워풀한 보컬의 소유자 홍일점 조현아, 매력적인 저음의 박용인 등 자신들의 음색을 보여주는 혼성 3인조 R&B 심어송라이터 그룹이다. 특히 '봄을 그리다', '니가 있어', '그날에 우리', '저스트 더 투 오브 어스' 등 웰메이드 히트 넘버를 선보이며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통해 20대의 감성을 대표

하는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어반자카파는 지난 해 5월 미니 앨범 '스틸(Still)'을 발매하며 주요 음원차트를 올리는 성적을 거두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어 지난 해 8월 빈지노와 함께한 스페셜 콜라보레이션곡 '목요일 밤'과 올 5월 발표한 싱글 '혼자 로도' 연이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진정한 국민 그룹으로 저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앨범 활동 뿐만 아니라 드라마 '이변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의 OST '그런 밤과 드라마' '도깨비' OST '소원'으로 인기를 모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 '겨울'을 개최한다.

어반자카파는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 신곡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를 발표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음력 9월 13일)



▶**복** 36년생 바깥출입 삼가.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 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꿈을 접지마라.



▶**재**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행**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재**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복**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재**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행** 42년생 여유있게 행동.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행**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행**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행** 33년생 출입을 삼가라. 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재**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 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망이를 쥐가 듣는다. 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재** 35년생 미련을 버려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인연다. 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 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